

도 행정심판위, 도민 권익구제 적극 나서

도민생활 밀접사건에 행정전문가 등 복수주심제 도입 근거 마련

경제적 약자·소상공인 법률 지원 확대·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전북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건의 심리를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확대 등 도민의 권익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수주심제를 도입하고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청소년 관련 사건의 심리기준을 완화에 선량한 소상공인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도민이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생활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도민 생활 밀접사건이 증가하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복수주심

제를 도입해 기존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행정전문가도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운영 규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수주심제는 1건의 사건을 심리할 때 2명 이상의 주심위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기존에는 법률전문가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전문가를 추가로 지정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제적 약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변호사, 노무사 등 10명의 국선대리인을 신규 위촉했으며, 시군과 협력해 국선대리인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 시도위원회 중 최초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개정법률'을 반영해 청소년 관련 사건의 심리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위·변조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하는 방식이었으나, 개정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7일 감경 또는 처분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이 기준이 적용된 지난해 18건의 청소년 사건 중 13건이 일부 인용됐으

며, 이 중 10건이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해 감경됐다.

이는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상정보, 청소년 진술 등을 통해 업주가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다 유연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줄이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보호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행정부지사)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건을 더욱 면밀히 심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만호 기자

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자부담 폐지

카드 자동 충전 방식 도입… 재발급 없이 지속 사용 가능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어촌 여성농업인의 문화·학습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의 자부담을 폐지하고, 카드 발급 방식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1인당 15만원 지원금 중 13만원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2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보조금(13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카드 발급 방식도 대폭 개선됐다. 기존에는 매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후, 자부담 2만원을 지출해 은행을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 명의의 농협카드에 자동으로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한 차례만 농협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인증을 받으면, 매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자동 충

전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농협카드는 여성농업인이 70~80% 사용하고 있어 대다수 이용자는 기존 카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발급 수요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유휴·건강보험 적용·사이버 거래·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문화·학습 활동을 위해 현금과 같은 실질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편, 2025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적격 심사를 거쳐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은 월트디즈니월드 같은 글로벌 테마파크 최적지”

전북 백년포럼서 선도성 프로젝트 투자 필요성 제시… 가족중심·첨단기술 접목된 복합 멀티 콘텐츠 조성 등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선도성 프로젝트 투자가 필요하며 저렴한 부지공급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임영수 전문위원은 11일 전북연구원이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북 백년포럼'에서 '복합테마파크 이해 및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개발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임 전문위원은 이날 특강에서 테마파크의 특성과 함께 세계 각국의 테마파크 사례를 소개하며, 전북 새만금에 개발가능한 글로벌 테마파크의 구체적 구상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향후 테마파크의 주요 키워드는 가족 중심, 다양한 테마, 대형화 및 복합화, 첨단기술 접목, 세계적 테마파크 브랜드, 도심형 복합엔터테인먼트, Multi Contents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



1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 백년포럼'이 열려, 김관영 도지사, 이남호 전북연구위원장, 임영수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전문위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 이를 반영한 글로벌 테마파크를 개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컨대 외국 월트디즈니월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니버설스튜디오 재팬, 하우스 오브 호러, 리즈월드 산토사,

키디아 엔터테인먼트시티, MGM 스튜디오, 캐리비안 베이 등 글로벌 테마파크 입지로 최적화됐다는 것이다.

임 전문위원은 새만금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화를 위한 7개 세부 전략도

소개하며,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개발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전문위원이 제시한 7개 전략은 △선도성 프로젝트 선정후 점진적 사업 확대 △가든형 테마파크부터 단계적 투자 △특화연출 및 스토리텔링 △랜드마크 도입 △관광숙박과 온천형 레저를 결합한 물놀이 시설 △특화된 숙박시설 도입 △테마파크와 IP 결합 등이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새만금은 풍부한 생태·문화·역사 관광 자원과 넓은 공간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한 최적지”라며, “전북연구원이 역시 K-컬처 복합 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방향 등 새만금 관광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전북특별자치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최종 전략을 점검하며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1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 성과를 공유하며 완성도

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위원, 시군 관계자, 관계기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특화지역 모델을 검토하고 최종 의견을 수립했다.

도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은 △산업단지 중심 에너지 공급 확대 △농촌 지역 에너지 자립 실현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됐다.

먼저 산업단지 중심 모델은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지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친환경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또한 농촌 지역 모델은 지역 내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스마트 농업 및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복지를 함께 도모하는 전북형 지속가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에 140억 지원한다

재해·질병 발생 시 60~100%까지 지원… 농가경영안정 도모

전북자치도는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 축산농가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에 140억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비의 7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축산농가 부담은 25%이나, 남

원시, 진안군, 장수군, 부안군에서는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5~10% 추가지원을 하고있다.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이 돼있고 16개 축종이며 가축사육 시설도 보장된다. 주요 보장은 가입 금액 한도의 손해액에서 소 60~90%, 돼지 80~95%, 가금 60~90%, 사슴·양·꿀벌 60~95%이며 축사 90~100%를 보상해 준다. /이만호 기자

2025년
1학기

성인(리더자)의 필수!

모집

스피치·긴장해소·시낭송·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자신감, 리더십, 시낭송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 김양옥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역임
- 전북대학교 토목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경위원장
- 한국스피치·음성치료 전문회장, 전주매일신문사 부사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기업에 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BC, TVN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스피치, 시낭송지도사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스피치 노하우' '행복한 스피치' 등



김양옥 교수

〈전북특별자치도내 평생교육원 각 지역별 모집〉

학교별	주요과정(매주 1회 수업)	지역별(자유선택)
전주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금, 야간)	전주, 완주, 김제, 부안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 스피치&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스피치지도사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기법과 리더십(주, 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 주간)	익산, 김제, 논산, 강령, 무주
군산대학교(군산)	스피치기법과 리더십(화, 야간)	군산, 서천, 부안, 김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주, 고급)(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코칭 등(주간)	정읍, 고창, 순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남원, 장수, 순창, 곡성, 구례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아)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3월에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